



용산의 한 영화관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극장을 찾는 사람이 적어 한산하다. /손진영 기자 son@

“메르스때 보다 심각” 관객 사라진 극장가

50편 이상의 영화 개봉일 미뤄
개봉한 영화들 기대이하 성적표
배급사들 “상영일자도 못 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화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극장가에 관객 발길이 끊기면서 50여편 이상의 영화들이 개봉을 미뤘다. 예정대로 개봉한 영화들은 기대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시장에 따르면, 지난 주말(6~8일) 영화관을 찾은 총 관객수는 29만9509명에 그쳤다. 전날인 9일 관객수는 5만 1575명이다. 이는 통합전시장 집계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저치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보다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상영관은 문을 닫기도 했으며, 상영회차도 기존보다 대폭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영화관의 관객 감소는 당연한 현상이다”라며 “영화관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더 나아가 문화계 전반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영화 배급사들은 2~3월에 개봉 예정이던 작품들을 4.5월로 미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영화 ‘연평해전’ 외에 개봉일을 미룬 작품은 없었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개봉을 연기한 작품만 국내외 통틀어 50편 이상이다”라며 “개봉일은 배급사들끼리 논의 중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 몇몇 영화는 아예 하반기 개봉을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영화 개봉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개봉일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월 개봉 예정이던 ‘사냥의 시간’ ‘기생충: 흑백판’과 3월 개봉작이던 ‘결백’ ‘밥정’ ‘이장’ ‘은위드: 단 하루의 기적’ ‘후쿠오카’ 등이 개봉 연기 후 상영일을 잡지 못했다.

올봄 최대 화제작으로 손꼽히던 디즈니 실사 영화 ‘물랑’도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4월 개봉 예정이던 ‘007-노 타임 투 다이’는 아예 11월로 개봉일을 미뤘다.

새롭게 영화 개봉일을 잡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영화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극장 성수기에는 경쟁작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정일에 맞춰 개봉하는 영화도 있다. 지난 5일 개봉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포함해 ‘다크 워터스(11일)’, ‘용이네 곱장집(12일)’, ‘세인트 아가타(19일)’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예산 영화의 경우 개봉 전 마케팅비용을 소진해 그대로 영화 개봉을 강행하고 있다”며 “관객수를 확보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DB그룹, 코로나 피해방지 성금 10억 기탁

구호물품·방역 활동 등 사용

DB그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방지에 힘을 보탰다.

DB그룹은 1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성금은 의료구호물품 지원과 자가격리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지원, 방역 및 예방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DB그룹은 지난 5일 경기 광주 시 그룹 인재개발원을 치료시설로 제

공한바 있다. 코로나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초에는 DB손보가 1억원 상당 방역 마스크를 저소득 아동 및 노약자에 제공하기도 했다.

DB그룹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일선에서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면서 “은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원격수업 플랫폼, 사립대도 공유

〈9개 거점국립대 온라인 강좌 통합운영〉

교육당국 대학 재택수업 지원 고민
확대 방안 마련될 경우 3월말 사용

거점국립대학의 온라인 강의 통합을 위해 마련 중인 ‘온라인강의 통합시스템’을 사립대까지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이 재택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원격수업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들을 위한 조치다. 당초 9개 거점국립대 원격강의 통합을 위해 추진됐던 통합시스템의 활용이 사립대까지 확대될 경우, 추후 국내 대학들의 원격강의 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하 케리스)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국립대학들이 원격수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중인 온라인강의 통합시스템을 국내 사립대까지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 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하는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거점국립대의 기획처장, 기초교육원장 등이 ‘거점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의회’를 꾸리고 추진



KOCW 홈페이지.

한 사업의 일환으로 케리스가 위탁받아 개발해 왔다.

당초 이 시스템은 9개 거점국립대학의 원격수업을 학점 교류하고 각 거점국립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하나의 시스템에 묶어 통합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개발이 추진됐다. 각 대학의 원격수업을 공유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경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3월 봄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규 오픈이 예정돼 있었지만, 확대 활용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이르면 3월 말까지 당겨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당초 올해 1학기 시범적으로 운영해 사용자 교육, 시행 지침 마련 등을 마련하고 2학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었다며 “사립대 확대 활용은 국립대 운영위원회와 케리스, 교육부 등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예산 추가 확보다. 이 시스템을 사립대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증설하는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초 국립대가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전체 사립대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협의는 물론이고 다른 대체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케리스 관계자는 “거점국립대를 위해 제작한 시스템을 기타 국립대와 사립대로 확대하는 데는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이 통합시스템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역할을 비롯해 다른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학 공개강의서비스(KOCW) 활용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KOCW는 1만8000건의 공개강좌 및 27만 건의 강의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학공개강의서비스다. KOCW 공개강좌를 활용해 개별 대학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계하면 교수자가 강의를 직접 촬영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케리스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LMS는 구축돼 있지만, 강의 콘텐츠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KOCW 교육 콘텐츠를 활용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i@

GS칼텍스, 코로나 피해복구 성금 2억 재해구호협 전달

성금, 자가격리대상자·의료진 지원

GS칼텍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나섰다.

GS칼텍스는 10일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GS그룹 성금 10억원에 이은 별도 지원이다. 이번 성금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GS칼텍스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에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로 모금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성금은 자가격리대상자와 의료진을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필품 및 식료품 키트를 지원한다. 의료진에게는 비타민,



GS칼텍스가 여수공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근 마을에 방역을 실시했다. /GS칼텍스

홍삼 등 피로회복 물품으로 구성된 ‘힘내요! 건강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GS칼텍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도 나서고 있다.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인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했다. 향

후 여수공장 인근마을 소재 32개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여수사랑 상품권을 구매했다.

/한수지 기자 sjkim2935@

직장인 절반 이상 “요즘 경조사 참석 안한다”

잡코리아 알바몬 설문조사
응답자 85% “코로나 아니었으면 참석”

직장인 절반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최근(1월 이후) 경조사 참석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

과, 65.7%는 ‘최근 경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 이들 가운데 54.6%는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불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조사에 참석했거나 참석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45.4%로 절반 이하였다.

경조사 초대받은 직장인 중 ‘참석하지 않고 경조금만 전달할 것’(48.2%), ‘참석하나 얼굴만 보고 올 것’(43.1%)이란 응답이 10명 중 9명이

상이었다. ‘참석하지 않고 양해를 구할 것’(6.4%)이란 직장인이 소수 있었고, ‘참석하고 식사도 할 것’(2.3%)이란 응답은 가장 적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대부분(85.6%)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만 없다면 대부분 참석했을 것’이라고 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용수 기자 hys@